

“석유공사, 영국 다나 관리 허술로 ‘연쇄 부도’ 위기” 기사 관련
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내용

- 보도매체 : 아주경제신문 등 (‘15.09.10)
- 제목 : 석유공사, 영국 다나 관리 허술로 ‘연쇄 부도’ 위기
- 보도내용 : 하단 참조

동 보도내용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

- ‘14년말부터 지속된 저유가로 전세계 대부분의 석유회사가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으며, 다나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은 유가 급락에 따른 단기적인 유동성 측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임.
 - 유가 급락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이 우려됨에 따라 유동성 악화에 대한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다나의 자금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, 2년간(‘15~‘16년) 한시적으로 3억불 한도로 공사가 자금 지원할 것을 결정한 것이며, ‘15.9.10일 현재까지 자금 지원 실적은 없음
- 2014년 수익은 320백만 파운드 가량으로 전년대비(680백만파운드) 약 절반이상 수익이 떨어졌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.
 - 다나의 2014년 매출액은 약 682백만 파운드 였고, 2013년 매출액은 약 1,004백만 파운드였음

※ 관련 보도내용 요약

- 자회사인 다나 스스로 은행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 석유공사가 직접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
- 2014년 수익은 320백만 파운드 가량(한화로 약 640파운드)으로 전년대비 (680백만 파운드) 약 절반이상 수익이 떨어졌다고 주장